



2013
성탄절
One-point
묵상자료

12월 23일~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
2013
성탄절
One-point
묵상자료
12월 23일~28일



01	목차
02	원포인트 묵상가이드
04	원포인트 묵상자료
16	가족활동자료
20	부록 : 성탄묵활동



✦ 2013년 영락교회 성탄절 One-point 가이드

1. 설교를 통한 One-point 교육

본당설교와 교회학교 설교가 동일하게 진행되기에 저녁에 자녀들과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2. 묵상을 통한 One-point 교육

한 주간 동일한 본문으로 영·유아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용 원포인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3. 전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절 특별예배

1부 9시 30분 성탄예배는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 30분 성탄예배는 영유아유치, 아동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당일 본당 중앙좌석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가정이 착석하겠습니다.

4. 성탄절 가족활동 One-point 교육

❶ 말씀달력을 통한 묵상

대림절 기간 동안(총 25일) 희망, 평화, 사랑, 기쁨의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❷ 은혜를 나누는 성탄절 이브 활동

성탄절 이브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간에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❸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활동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나씩 정해서 12월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 주변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에게 성탄카드와 케익선물하기
-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성탄카드와 작은 선물 전하기
- 주변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탄카드와 선물 전하기
- 신문이나 우유 배달해 주시는 분들에게 성탄카드와 선물 전하기
- 영락모자원에 필요한 물품 기부 또는 후원하기
- 영락경로원에 필요한 물품 기부 또는 후원하기
- 영락보린원에 필요한 물품 기부 또는 후원하기
- 영락애니아의 집에 필요한 물품 기부 또는 후원하기

❹ 감사를 나누는 금요가족예배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 한 주간 묵상할 본문

2013년 성탄절 One-point의 주제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구약과 신약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본문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월요일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사건인 불뱀사건(민 21:4-9)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화요일에는 성탄절 이브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말씀(사 9:1-7, 마 11:2-6)을 묵상하고, 수요일에는 성탄절 당일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목동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눅 2:1-20)을 묵상하고, 목요일에는 메시아 임재의 상징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바디매오 사건(막 10:46-52)을 묵상하고, 금요일에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달리다굼 말씀(막 5:35-43)을 묵상하고, 토요일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요 21:1-17)을 묵상하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전교인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 묵상본문 한 눈에 보기 >>

월요일 -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민 21:4~9)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사건인 불뱀사건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화요일 - 어둠을 밝히는 빛(사 9:1~7, 마 11:2~6)

성탄절 전야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요일 - 목동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눅 2:1~20)

성탄절 당일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목동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을 묵상합니다.

목요일 - 눈을 뜬 바디매오(막 10:46~52)

메시아 임재의 상징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바디매오 사건을 묵상합니다.

금요일 - 달리다굼(막 5:35~43)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달리다굼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요일 - 베드로의 회복(요 21:1~17)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12월

23 + 월요일
+ 민 21:4-9
+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말씀읽기

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에돔 땅 옆 광야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뱀 떼에 사람들이 물린 것입니다. 이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의 방망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길이 힘들다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자 불평이 더해지고, 불평이 깊어지자 그동안 받았던 기적같은 은혜였던 '만나'마저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어느새 광야 훈련 40여년 가까이 지났건만 이 고질적인 불신과 불평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광야 훈련을 끝내고 약속을 땅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단호히 징계하심으로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뱀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고,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이 뱀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치료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죄사함과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하기

혹시 불땀에 물린 것 같이 곤란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신앙과 불평으로 실패하여 쓰러진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순간인데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불땀에 물린 것 처럼 상처가 나고 무너진 삶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에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이번 성탄절이 진실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생각하기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 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삶속에서의 적용

기 도 1. 가족 기도 제목: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 ▶ 내 안의 고질적인 불신앙과 불순종, 불평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 ▶ 우리 가족의 신앙이 그저 또 한 번의 위기 모면을 위한 신앙 생활을 넘어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12월

24

✦ 화요일

✦ 사 9:1-7 / 마 11:2-6

✦ 어두움을 밝히는 빛



말씀읽기

사 9:1-7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겹옷이 불에 켜 같이 사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마 11:2-6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해하기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위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대제국 앗수르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앗수르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첫 번째로 황폐화된 지역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앗수르로 잡혀간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록 동족인들에게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멸시받는 그늘진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그 제국의 채찍과 막대기 아래서 신음하는 흑암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는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신다고 합니다.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기'로 태어나실 메시아는 장차 그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시고, 참된 평강의 왕으로써 영원히 정의와 정의와 다스리실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실제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자라나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 한센병자들, 못 듣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지역 갈릴리에서!



적용하기

산에 올라가보면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이 그늘졌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가난, 가족의 장애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 질병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오래된 가족 간의 불화 등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넘어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렇게 항상 그늘져 버린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 동안에 우리의 삶 속,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시는 평안과 은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립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항상 그늘져 보이는 이웃과 친구들, 또는 어려운 곳에 아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불빛을 비춰주는 사랑의 나눔을 가족별로 실천해 봅시다. '지금 고통이 있는 그 땅에는 언제나 흑암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아적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기

예언의 성취

유명한 선교사이고 또한 교육가였던 사이러스 함린 박사에게 어느 날 터키의 한 육군대령이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정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바벨론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함린 박사가 묻자, 대령은 "네,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허였고,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함린 박사는 구약성경의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육군 대령은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은 그 말씀은 역사가 아닙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 함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가 아니고 예언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바벨론이 한창 번창하던 때의 기록입니다." 육군 대령은 의심과 근심어린 표정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함린 박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삶속에서의 적용

기도 1. 가족 기도제목 :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 ▶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마음과 삶에 드리워진 그늘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 주변 친구, 친척, 이웃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늘에도 새로운 회복의 빛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가족활동 [은혜를 나누는 성탄전야] 16p 참조

1.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자녀들과 촛불을 밝혀 보세요.
2.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일 년 간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12월

25

✦ 수요일

✦ 눅 2:1-20

✦ 목동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



말씀읽기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해하기

실제 성탄의 밤은 오늘날 처럼 그렇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아무도 그 날이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는 날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을 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 호적법에 따라 갓 결혼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향하게 되며,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모님만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감격해 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 들판에서 뜻밖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영광의 빛을 두루 비추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가 나셨음을 전합니다. 또 홀연히 수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척박한 들판의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며, 이 놀라운 영광의 축제의 참여자가 되었고, 나신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적용하기

누구인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목자들이 성탄의 첫 축제에 초대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들판의 거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어떤 특권도 없던 목자들이었는데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먼저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기쁜소식이 세상에서 별로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오는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이 낮은 곳 부터 채워지듯이 성탄의 은혜도 겸손과 감격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집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의 이 밤에는 가족이 둘러 앉아 그 옛날 들판의 목자들처럼 '첫 번째 경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

소외된 환자들에게 임한 사랑

의사로서 좋은 여건을 가진 직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록도에서 있던 '수련의' 기간 동안 소록도의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후 그는 한센병이 전염된다는 당시 속설에 개의치 않고 소록도에 남아 환자의 환부를 직접 만지고 하루 20여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록도에 수많은 한센병환자들과 소아마비 환자들이 치유되게 되었고 치유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한센병과 소아마비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여수 애양병원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오늘도 여전히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

■삶 속에서의 적용

기 도 1. 가족 기도제목 :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 ▶ 나의 삶의 들판, 나의 삶의 마굿간과 같은 가장 어렵고, 낮은 자리에서 야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 가장 추운 벌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가족활동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17p 참조

1. 미리 사랑을 전할 기관이나 개인을 생각해 봐 두세요.
2.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린 후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12월

26

+ 목요일
+ 막 10:46-52
+ 눈을 뜬 바디매오



말씀읽기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해하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구원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리고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즈음에 계신 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예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 뿐입니다. 소란스러우니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간절한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못 들으실 리 없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매오를 부르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매오는 주님의 '긍휼'이 맹인된 자신의 눈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적용하기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치료 능력을 강조하거나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까지 찾아온 그 병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간절하게 예수님만 찾는 것, 오직 그 분만 믿는 것, 그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께서 치료해 주시면서도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믿음의 칭찬을 통해 예수님은 이 치료의 완성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기

믿음의 기적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중이었을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1944년 6월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했다.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작전 전날 밤은 폭우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접한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하고 기도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믿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결국 이 상륙작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믿음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삶속에서의 적용

기 도 1.가족 기도제목: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 사회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회가 되며, 한국의 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12월

27

+ 금요일
+ 막 5:35-43
+ 달리다굼



말씀읽기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바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해하기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병을 앓은 듯 싶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의 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다른 많은 가족이 그토록 애를 썼지만 사랑하는 딸을 죽음의 병마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회당장이면서도 일개 촌부인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만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녀의 회복을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려 놓고 예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 딸이 이미 죽었다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야이로의 그 첫 믿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귀한 치료의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실 뿐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밖에 두시고, 오직 부모와 제자들 몇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이로가 처음 부탁했듯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열두살 소녀는 일어났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가정의 슬픔이었던 이 아이의 병을 온전히 치료하셨습니다.



적용하기

가족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도 때로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이 사랑을 마지막까지 견고히 세워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를 그 고통과 질병과 환난에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간절한 기도가 부모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세우기 위한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으며, 치료하심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음과 몸에 쌓였던 아픔이 있다면, 간단한 편지지에 작성하여 서로 나누고, 이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족 기도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이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생각하기

가정까지 회복하시는 은혜

엄마가 죽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아빠에게 입은 마음에 상처에, 보호소에서 동생까지 죽어서 심한 정신질환을 앓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이 다카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때 한 간호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소녀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그 소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회복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3중고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어둠속에 갇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던 헬렌켈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았던 앤 설리번 메이시(Anne Sullivan Macy)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설리번이 사랑으로 헬렌켈러를 돌볼 때 헬렌의 삶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한 사람 뿐 아니라,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

■삶속에서의 적용

기 도 1. 가족 기도제목 :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 ▶가족 상호 간에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며, 아픔의 치유와 가정의 온전한 세워짐을 함께 기도합니다.
- ▶이 땅의 기독교인 가정들이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세워져 세상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가족활동 [금요 가족예배] 18p 참조

1. 한 해 동안 각자가 느낀 아픔을 적어 봅니다.
2. 가족들과 함께 예배 하면서 그 아픔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28

✦ 토요일

✦ 요 21:1-17

✦ 베드로의 회복



말씀읽기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200규빗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해하기

베드로는 지난 삼년동안 예수님을 좇아 다니며 수 많은 기적도보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으며 칭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실수와 실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는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낙심해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실패가 부활의 사건 보다 더 커 보였던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부활' 이라는 대단한 사건보다 예수님과 다시 진실하게 만나는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좌절한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스스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며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실패와 좌절감의 그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하고 낙심한 마음도 온전한 인격적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하기

지난 한해 동안에 내 안에 썩어지 썩여진 실패감과 낙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를 너무 잘 아시듯이 우리가 낙심한 이유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과 실패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두를 다 아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소중하게 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또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듯이 우리도 비록 실패한 그 부분일지라도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기 전에 그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순간 포기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아,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의 아픔과 실수와 실패를 나누고, 서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 주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기

사랑의 기적

어느 시골 작은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 신부를 돕던 소년이 실수하여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찢찢매며 떠는 소년의 뺨을 치며 버럭 소리쳤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소년은 그 일 이후 일생동안 천주교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 대 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어느 큰 도시 주일 미사. 신부를 돕던 소년이 역시 실수하여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놀라 떨며 금방 올 것 같은 소년을 사랑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잖니?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이 유명한 대주교 홀튼 쉰입니다. 사랑과 격려를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삶속에서의 적용

기도 1. 가족 기도제목 :

2.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 ▶ 우리 가족 구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낙심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다시 소성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 ▶ 수 많은 실패를 겪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올바른 인격과 삶으로 다시 세워주어 시대의 참된 리더로 키우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소서.



+ 성탄절 One-point 교육 가족활동 자료 1

+ 은혜를 나누는 성탄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전야 파티를 열어 봅니다. 어둠을 빛으로 몰아 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촛불을 밝히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우리 가족의 삶에 지난 일 년 간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니다.



활동 가이드

- ① 미리 케이크를 준비해 둡니다.
- ②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 ③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초를 끕니다.
- ④ 한 사람이 대표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 ⑤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 일 년 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 성탄절 One-point 교육 가족활동 자료 2

+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가장 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오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성탄절 오전 전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온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세요.



활동 가이드

- ① 미리 성탄절 오후에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 가족회의를 해 보십시오.
- ② 성탄절에 전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자녀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해 보세요.
- ③ 아래를 참조하셔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준비를 해 보세요.
- ④ 구체적인 실천의 예
 - 주변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 분들께 케이크 선물해 드리기
 -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작은 선물 전해 드리기
 - 주변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성탄선물 전하기
 - 신문이나 우유를 배달해 주시는 물을 위해서 현관문에 작은 선물 두기(카드와 함께)등
 - 애니아의 집 :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샴푸 등의 선물 또는 후원
 - 보린원 : 식기세트, 약품(상처연고, 밴드), 양말, 우산, 스타킹, 라면 등의 선물 또는 후원
 - 모자원 : 쌀, 화장품, 세제, 식품(라면,참치.햄) 등의 선물 또는 후원
 - 경로원 : 성인용요실금팬티(중), 파스, 찜질팩 등의 선물 또는 후원





✦ 성탄절 One-point 교육 가족활동 자료3

✦ 금요 가족예배

- ① 미리 예배 시간을 약속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 ②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일 년 동안 감사할 제목에 대해서 잠시 적어 보세요.
- ③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시고, 아래의 순서대로 예배를 인도하세요.

찬 양 -----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 다 같이
사랑의 가족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동기도 -----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이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대표기도 -----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 합니다. ----- 맡은이

말씀읽기 ----- 이제 오늘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 다 같이
이사야 41:8~10

메 시 지 ----- 인도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서 바벨론의 공격에 함께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이 시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제목 ----- 다 같이
나 누 기 ----- 이제 2013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

가 족 -----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 인도자
기 도 회 ----- 이렇게 감사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세요.

주 기 도 -----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다 같이



감사제목 리스트

20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여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의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A large, light gra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list of thanksgiving topics.



✦ 부록 : 성탄목(Christmas Tree) 활동



성탄목의 의미와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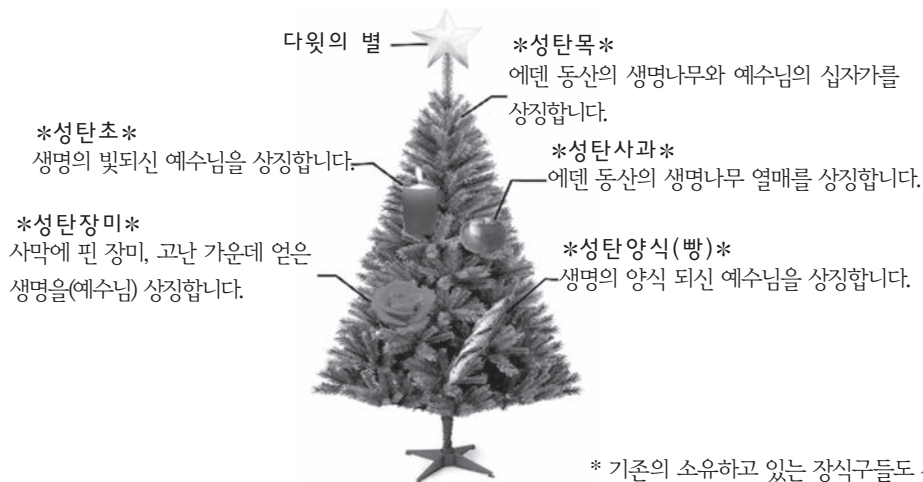
의미 : 유대인들은 매년 장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 자녀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묻는 자녀에게 부모들은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며 밤이 새도록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소중한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독교전통에 따른 성탄목을 꾸미면서 성탄목과 장신구 하나 하나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나누며, 예수님의 오심을 같이 묵상합니다.

유래 : 성탄목은 11세기에 교회에서 연출되었던 천국유희(Paradise play)였습니다. 이 풍습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로는 이새의 나무(새이)로 상징되었습니다. 성탄목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성탄절 전통입니다.



활동 가이드

- ① 작년에 구입한 구입한 '성탄절 성탄목(Christmas Tree) 장식구 세트'를 활용합니다.
- ② 미처 '성탄절 성탄목(Christmas Tree) 장식구 세트'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시중에서 성탄목과 기독교전통에 맞는 장신구를 구입합니다.
- ③ 자녀들과 함께 성탄목과 각 장신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나눕니다.
예) “아빠,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를 다는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과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뜻한다.”





발행권		10호(소년부용)
발행일		2013년 12월 8일
발행인		이철신
편집인		이영선 김성수
집필진		박유라 도화영 김현근
디자인		장현주
주최소		서울시 중구 저동2가 69번지 영락교회
전화		02-2280-0114
발행처		영락교회교회교육원